서울특별시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713호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다. 제출일자 : 2019년 5월 24일

라.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2.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LG, KT 등 대기업 연구소와 300여개의 R&D 중소기업이 자생적으로 집적한 양재 일대를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2017년 12월부터 AI 특화기업 지원 및 인재양성 등을 위한 앵커시설로서 양재 R&D 혁신허브를 위탁운영하고 있음

나. 최근 양재 R&D 혁신허브에 대한 AI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근 민간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며,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됨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상시설

○ 한국교총회관(6층, 500㎡) / 서초구 태봉로 114 소재

○ 하이브랜드빌딩(12,13층, 2,958㎡) / 서초구 매헌로 16 소재

○ 민간빌딩(전층, 2,972㎡) / 서초구 매헌로 8길 소재

○ 품질시험소 별관(1,423㎡) / 서초구 태봉로 108 소재

나.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년 ('19.7.~'20.6.)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

○ 주요 위탁사무

- 양재 R&D 혁신허브 내 입주기업 모집
- AI 컬리지 운영을 통한 AI 전문인재 양성
- 컨설팅, 투자연계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
-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통한 기업·인재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혁신허브 시설 관리·운영(유지보수, 시설대여, 청소용역 등)

다. 수의계약 사유

○ 기존 위탁사무와 내용은 동일하고 위탁하는 공유재산이 추가되는 사안으로, 기존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2020년 6월까지는 기존 수탁기관이 통합 관리함으로써 행·재정적 효율성 도모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시가 4차 산업혁명의 거점으로 조성 중인 양재 R&D 혁신지구내 혁신허브에 대한 AI(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의 입주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인근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입주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이를 기존 수탁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나. 양재 R&D 혁신허브 추가공간 조성

○ 서울시는 서초구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300만㎡ 부지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AI 중심 혁신지구로 육성하기 위해 양재 R&D 혁신허브 운영, 캠퍼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임.

- 양재 R&D 지구 내 주요시설은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양곡도매시장, 염곡차고지가 있고, 민간시설로는 LG-KT연구소, 한국교총회관, KCTC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aT센터, 화훼공판장, 양곡유통센터 등이 있음.

- 양재 R&D 혁신허브(이하 “혁신허브”)는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서울시가 2017년 12월에 설립한 전문기관으로, 현재 한국교총 회관(서초구 태봉로 114) 4개 층(1·5· 6·8)/

면적 3,300㎡)에 사무공간을 확보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있음.

〈양재 R&D 지구 〉

○ 현재 혁신허브는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2017.8.1 ~ 2020.6.30)하여 혁신허브의 시설관리와 운영 업무, 입주기업 선발과 지원, 4차 산업협력 관련 분야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올해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총사업비는 44억 1,657만원으로, 민간위탁금 22억 4,434만원, 임차료 12억 4,270만원, 시설비 9억 2,953만원으로 편성됨.

- 또한, 추경안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 5,891만원이 증액된 78억 7,5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 증액내역별로 보면, 임차료 8억

5,891만원(5개월), 시설비 25억원, 가구·집기 1억원임.

○ 이는 양재 R&D 기업 간담회에서 공간부족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민원사항을 서울시가 반영하여 80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 4곳을 임차 또는 개보수 하는 것임.

〈혁신허브 추가공간 시설물 현황〉

한국교총회관 추가 임차	하이브랜드 빌딩 임차
○소 재 지 : 서초구 태봉로 114 ○임차면적 : 500㎡(6층), 기존 임차 2,900㎡ ○소요예산 : 491백만원(10개 기업 입주 예정)	○소 재 지 : 서초구 매헌로 16 ○임차면적 : 2,900㎡(12,13층) ○소요예산 : 491백만원(25개 기업 입주 예정)
희경재단 빌딩 임차	**품질시험소 별관 개보수**
○소 재 지 : 서초구 매헌로 8길 47 ○임차면적 : 2,972㎡(지하1층~지상4층, 전층) ○소요예산 : 2,647백만원(30개 기업 입주 예정)	○소 재 지 : 서초구 태봉로 108 ○임차면적 : 500㎡(6층), 기존 임차 2,900㎡ ○소요예산 : 1,186백만원(15개 기업 입주 예정)

- 기존 혁신허브 공간인 한국교총회관 일부를 추가로 임차하는 한편,

하이브랜드 빌딩과 희경재단 빌딩 등 민간건물을 신규로 임차하고, 서울시 품질시험소 별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약 4년 동안 활용하고 신축 건물과 함께 공간을 활용할 계획임.

○ 이러한 서울시의 움직임은 전세계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 관련 ICT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국내 타 지역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규모화와 집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그동안의 혁신허브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2018년도 매출액은 649억원으로 입주시점의 387억원 대비 68%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입주사 노동자는 총 216명으로 입주시점의 130명 대비 66% 증가했음.

다. 민간위탁의 타당성

○ 서울시는 양재 R&D 기술지원과 기업보육 등과 관련하여 전문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가진 현재의 수탁기관(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과 기존 계약기간을 고려(2017.8 ~2020.6)해 위탁기간을 1년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는 기존 위탁사무와 내용은 동일하고 위탁하는 공유재산만 추가하게 되므로, 현재의 수탁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입주기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가 가능하고, 행·재정적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판단됨.

〈양재 R&D 혁신허브 추가 공간 위탁개요〉

○ 위탁기간 : 1년 ('19.7.~'20.6.)
○ 위탁사업비 : 없음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계약 (카이스트-모두의연구소 컨소시엄)
○ 주요 위탁사무
- 양재 R&D 혁신허브 내 입주기업 모집
- AI 컬리지 운영을 통한 AI 전문인재 양성
- 컨설팅, 투자연계 및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 등 AI 특화기업 성장지원
- 세미나·포럼 개최 등을 통한 기업·인재 간 소통 및 교류 활성화
- 혁신허브 시설 관리·운영(유지보수, 시설대여, 청소용역 등)

○ 다만, 현재 혁신허브 시설이 한국교총회관 1곳에서 4곳으로 확대되고, 관리대상 시설 면적과 입주기업이 2배 이상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위탁사업비의 증액 없이 올해 민간위탁금(22억 4,434만원)의 범위에서 정상정인 운영이 가능할지는 의문시 됨.

○ 실제로 혁신허브 개관 시부터 총괄 담당 1명과 보조인력 5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세미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상 시설과 기업수가 증가한 점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 보충과 예산 반영을 하는 것이 혁신허브 입주기업들에 대한 수준 높은 운영·지원 서비스를 가능케 할 것임.

○ 또한, 각각의 혁신허브 시설이 집적화되어 있지 않고, 도보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거리에 서로 분리되어 있어 입주기업 간의 소통과 협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됨.

○ 끝으로 서울시는 관리인력 증원과 시설운영비 등 일부 부족한 위탁사업비를 SBA 출연금(약 1억 3,300만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이는 의회가 심사·의결한 예산을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이·전용·변경 등의 적법한 사업내용 변경 절차 없이 사업부서 임의대로 예산을 사용하는 행위로, 의회의 예산심사권을 무력화시키는 변칙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으므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6